

‘열린 정신’ 이 어우러진 문화잔치

제17회 파리 도서전을 다녀와서

박재환

동문선 주간

프랑스 파리도서전을 풍요롭고도 빛나게 한 것은 언론의 열린정신이었다. TV와 라디오 방송국의 열띤 호응과 수많은 이벤트의 생중계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위해 그들이 보여줬던 철저한 준비정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이 파리도서전 네번째 참가이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에서 열린 제17회 파리도서전은 1년 사이에 무척 많은 변화를 보여줬다. 단순히 전시회 걸모습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동원된 전시회 내용은 놀라운 변화로 비쳐졌다. 이번 파리도서전에서 보고 느낀 사실들이, 5월에 열리는 우리나라 도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언론의 열린 정신 더욱 빛나

이번 파리도서전의 큰 변화 중 우선 전시 공간의 확대가 눈에 띈다. 올해는 지난해 전시공간(2만9천㎡)에 비해 약 20% 증가된 3만5천㎡의 규모에 별도의 멀티미디어 전시공간까지 마련했다. 또 참가 출판사의 수도 지난해 1200여개사에서 올해는 1350여개사로 증가하였다. 외국 출판사의 참여도 두드러져 300여개사에서 400여개사로 증가했다.

이같은 규모확대의 변화 외에도 이번 파리도서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읽을 수 있었다. 첫째는 전자출판의 놀라운 성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멀티미디어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국내 도서전으로 개최되던 파리도서전이 국제도서전으로 도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출력을 비롯한 20여 개국 400여 출판사 혹은 출판관계 단체들이 참가해 국제도서전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도서전의 특징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도서전을 풍요롭고도 빛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열린 정신이었다. 130여개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200여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앞다투어 취재, 열띤 호응을 보여줬다. 특히 20여개의 대형 방송국들이 현장에 직접 스튜디오를 설치, 수많은 이벤트를 만들어 생중계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또한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 몽드》와 《르 파가로》 《리베라시옹》 《마가진 리테레르》 등 20여개의 신문·잡지사들이 도서전 기간 동안 날마다 돌아가며 하나의 주제를 정해 킥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예를 들면 《르 몽드》는 ‘현대 소설가들이 본 루이 아라공의 작품들’이란 주제로, 《마가진 리테레르》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보다 많이 책을 읽을 수 있겠는가?’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일반 관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킥퍼런스를 마련하였다.

도서전시 기간에 설치된 두 개의 카페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프랑스의 최대 서점 가운데 하나인 ‘프낙’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문학 카페를 열었으며, 철



① 역동적으로 꾸민 프랑스 쇠이유 출판사의 부스.
② TV방송국 RFO의 생방송 중계 현장.
③ 프랑스 최대 서점 ‘프낙’이 주최한 문학카페.

학 카페로 유명한 바스티유 광장의 카페 《카페 데 파르》는 올해 처음으로 전시장 안에 철학 카페를 열었다. 전자는 문학과 예술에 관련되는 이벤트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후자는 철학 논쟁을 벌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두 개의 카페 외에 ‘작가들의 광장’을 마련하여 작가와 역사가, 그리고 철학자들이 모여 한가지 주제 아래 집중적인 토론을 활발히 벌이기도 하였다.

각종 주제별 이벤트도 주목할 만

특히 이곳 이벤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프랑스 최고 지식인으로 꼽히는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들의 참여였다. 콜레주 드 프랑스는 이론의 여지없이 각 분

야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 강의하는 곳이다. 현재 52개 분야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모든 교수들이 전시 기간 내내 광장에 나와 관람객들의 질문에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대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또 다른 하나는 주제별 이벤트였다. 즉 ‘예술책과 예술’의 코너, ‘법학과 경제’ 코너, ‘과학의 공간’ ‘종교의 공간’ ‘시의 공간’ ‘만화의 공간’ ‘신생출판인들의 장’ ‘고서 전시회의 장’ 등을 마련,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일반인의 궁금증에 친절하게 답해주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 문화성이 직접 전시공간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4 갈리마르 출판사의 'SF작가 사인회'.

이외에도 주목을 끄는 다른 두 개의 특별 행사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3년 전부터 실시해 오는 초청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다. 지난해 미국에 이어 올해에는 일본이 초대되었다. 이 행사는 프랑스 문화성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일본에 관한 크고 작은 행사가 전시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수많은 일본의 작가와 학자·예술가들이 참가하여 일본문화 전반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또 다른 하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행사였다. 문예백일장과 연극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하고도 유익한 행사가 많이 열렸다.

정부·언론·국민의 정신이 어울린 행사

마지막으로 프랑스 출판협회측에서는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른 전시회 주 최측과 협의하여 한장의 입장권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전시회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예컨대 멀티미디어 전시회로 단순히 전자책에 관한 것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전반에 관한 전시내용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연결시켰다. 이 가운데 사이버 카페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출판관련 산업체 전시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전시회와 잡지 전시회 등이 함께 열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학생들을 위한 전시회는 직업 선택이나 진로 모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시되어 청소년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많은 행사가 열렸지만 파리 도서전에서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들만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도 행사를 하기 위한 그들의 준비정신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에게 이 행사는 단순히 출판관계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문화성을 비롯한 정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린 정신,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양 등은 우리가 두고두고 되짚어야 할 것들이라 판단된다.

서울도서전이 끝나면 항상 불거져 나오는 비판과 국제도서전을 다녀와서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이야기들을 굳이 여기에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도 언론도 출판관계자들도 그리고 국민도 좀더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열린 정신을 가질 때, 독서문화 나아가 모든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세이·문학

- 논문작성의 이론과 실제
송현호 / ₩10,000원
- 여성의 눈으로 읽는 문화
송명희외 / ₩8,000원
- 작가연구 2. 안수길
강진호외 / ₩7,000원
- 작가론총서4. 백 석
고형진 / ₩8,000원
- 작가론총서5. 이태준
이기인 / ₩8,000원
- 작가론총서6. 장자용
김은자 / ₩8,000원
- 작가론총서7. 홍명희
채진홍 / ₩7,000원
- 1950년대 남북한 시인연구
한국문학연구회편 / ₩17,000원
- 한국 현역 작가연구
정신재 / ₩9,000원
- 화해의 시학
김송배 / ₩16,000원
- 해방기 소설연구
이병순 / ₩15,000원
- 고소설연구 2
곽정식 외 / ₩15,000원
- 고시조 신책
성낙은 / ₩18,000원
- 시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최재남 / ₩15,000원
- 譯註 古典小說 太平廣記 작품선
윤하병 / ₩17,000원
- 조선시대 소설사 연구
김대현 / ₩10,000원
- 주해청구야담(Ⅰ·Ⅱ·Ⅲ)
최용 / ₩60,000원
- 韓國 古小說史의 視角
정규복 외 / ₩35,000원
- 韓國詩歌의 通時的 研究
조재훈 저 / ₩30,000원
- 韓國 翰林詩 評釋
김창규 / ₩40,000원
- 한국 고전극 연구
한옥근 / ₩11,000원
- 화곡의 이해
한옥근 / ₩10,000원
- 한국현대문학론
공종구 / ₩6,000원
- 한국 판소리 사설 형성연구
박관수 / ₩12,000원
- 한국 암흑기 신문사설 자료총서
편집부 / 12冊, ₩840,000원
- 한국 현대 소설이론 자료집
전기철외 / 78冊, ₩2,970,000원

- 한국 현대 시이론 자료집
윤정용외 / 48冊, ₩1,680,000원
- 근대 신문문에 자료집성
편집부 / 10冊, ₩600,000원
-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고영진 / ₩12,000원
- 경어법과 국어교육연구
서덕현 / ₩13,000원

역사학

- 근현대사강좌
한국현대사연구회 / ₩8,000원
- 중한경제발전비교연구
항주대학교한국연구소 / ₩10,000원
- 한국법통론
호건모, 방위신 / ₩12,000원
- 한국연구 1.
항주대학한국연구소 / ₩10,000원
- 한국연구 2.
항주대학한국연구소 / ₩10,000원
- 한국연구 3.
항주대학한국연구소 / ₩12,000원
- 한국연구 일문문헌목록
항주대학한국연구소 / ₩15,000원
- 한국연구 중문문헌목록
항주대학한국연구소 / ₩7,000원
- 식민지 시대 재일 조선인 운동연구
김인덕 / ₩13,000원
- 원효의 생애와 사상
황영선 / ₩15,000원
- 한국법제사
이정규 / ₩25,000원
- 한국사 회고와 전망 1·2·3
역사학회 / ₩36,000원
- 동양사 회고와 전망 1·2
역사학회 / ₩20,000원
- 서양사 회고와 전망 1·2
역사학회 / ₩20,000원
- 李奎鼎 의사의 항일 투쟁
李炫熙 / ₩12,000원
- 일제하 법형집람
편집부 / 8冊, ₩360,000원
- 조선 총독부 시장연보
조선총독부 / 24冊, ₩950,000원
- 한국 개화기 사료집성
편집부 / 6冊, ₩250,000원
- 한국 지배 정책 사료집
외무성 / 42冊, ₩2,550,000원

.....

국학자료원

전화 / 2727-949, 2917-948
팩스 / 2911-628